



[해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4% 인하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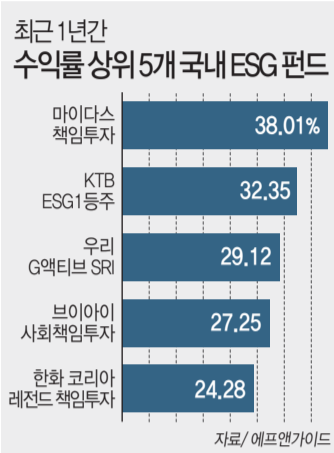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2543.03 (+49.16)	코스닥 847.33 (+8.19)
금리 (연평균) 0.970 (+0.005)	환율 (원/달러) 1109.30 (-6.30) (16일)

‘ESG 경영’ 생존 위한 필수 조건 기업도 금융사도 ‘착한투자’ 경쟁

국내 ESG 초기시장 형성 성공
기업·자산관리자 투자 지표
운용사 앞다퉀 ESG상품 확대
1년 수익률 38% 기록 등 성과



세계적 산업 흐름이 된 ESG (환경·사회·지배구조)가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투자전략으로 빠르게 자리 잡는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따라 급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금융 시장에 발맞춰 변화하는 분위기다. 운용사들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펀드 상품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도 ESG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결속 수준이던 국내 ESG 시장이 초기 시장 형성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존재감 드러낸 ESG 펀드... 출시 경쟁

1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2017년 말 24개이던 ESG 관련 펀드 순자산도 반등하기 시작하며 현재 1조1211억원에 달한다. 펀드평가사 모닝스타가 집계한 전 세계 ESG 펀드 총자산인 1408조원(1조2580억달러)의 0.08% 수준이다.

ESG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골드만삭스, SSGA, 인

베스코 등 세계적 대형 운용사들도 ESG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투자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국내 운용업계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올해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6개의 ESG 펀드가 출시됐다. 지난 9월 NH-아문디100년기업그린코리아펀드를 비롯해 이달 들어서 한화자산운용에서 연달아 한화그린히어로펀드, 한화ESG히어로펀드(채권) 2개의 상품을 내놓았다.

운용사들이 앞다퉀 ESG 상품 출시를 예고하며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직 ESG 상품을 내놓지 않은 다른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ESG는 이미 기업과 자산관리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지표가 됐고 그러한 분위기를 공감하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계량화된 평가를 통해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ESG 펀드 상품은 최근 존재

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금융 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마이디스책임투자 펀드(A1 클래스 기준)는 전 거래일(13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38.0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KTB ESG1 등주펀드(32.35%), 우리 G액티브 SR I 펀드(29.12%), 브이아이사회책임투자펀드(27.25%), 한화코리아레전드책임투자펀드(24.28%) 등 코스피 상승률(17.50%)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

◆ESG 미흡 기업 투자유치 어려워

기업입장에서도 ESG가 생존의 영역이 됐다.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모든 펀드 상품의 60% 이상이 ESG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업을 편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제5회 뉴테크놀로지포럼’ ‘AI+빅데이터’ 트렌드 공유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구글의 AI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둔 역사적 사건 이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AI에 주목하며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4년 여가 지난 올해, 미국의 오픈에이아이가 개발한 AI 언어모델인 ‘GPT-3’는 아직 AI가 ‘내로우 AI’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제너럴 AI’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를 만들어낼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선보여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AI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이터 댐’ 사업이 주축인 ‘디지털 뉴딜’ 정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AI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AI의 성능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는 올해 ‘데이터댐’에만 추정 예산 500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양질의 데이터와 결합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대표 IT 기업들은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는 이미 지난 1~2회(2016~2017년)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AI 시대의 도래를 발빠르게 예견했으며, 지난해 개최된 4회 포럼도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 주제: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AI)
 -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14:00~17:00
 - 장소: 서울 중구 청파로 464번지 LW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
 - 축사: 이원욱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조봉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
 -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경희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과 인공지능·비즈니스모델 연구소장)
 - 강연 1: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 강연 2: 정영조 KT 마스터
 - 강연 3: 오승택 에이모 대표
 - 등록: 사전등록, 홈페이지 접수(www.metroseoul.co.kr)
 - 접수: 참가 신청자 이메일로 개별공지
 - 문의: 제5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위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16일 오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뉴스1

산은, 8000억 투입... ‘초대형 항공사’ 추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산은-한진칼 투자계약 체결
세계 10위 수준 경쟁력 기대

산은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산은은행은 16일 한진칼과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은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

고 대한항공이 주주자금을 조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6면)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 신주와 영구채를 인수한다. 한진칼은 이 중 7300억원을 투입해 대한항공 지분을 매입하는데, 이 돈을 산은이 지원한다는 것. 산은은 한진칼의 8000억원 규모 제3차 배정 유상증자(보통주 5000억원·교환사채 3000억원)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은 항공사 합병 추진 배경으로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 심화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 구조재편 등 근본적인 경

쟁력 제고 노력 없이는 코로나 종식 후에도 국내 국적항공사의 경영정상화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지난 20년간 항공사 통합합이 활발히 진행돼 미국, 중국, 일본 등 인구 1억명 이상 국가와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은 1국가 1국적 항공사 체제로 재편됐다”고 말했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세계 10위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여객 및 화물운송 실적은 대한항공 19위 아시아나항공 29위다. 양사 운송량 단순합산시 세계 7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다.

또 대한항공 유상증자 아시아나항공에 투입되어야 할 대규모의 자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은 “운항스케줄 및 연결편을 개선하고 마일리지 통합해 국내 항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고, 국내 저비용항공사 3사(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단계적 통합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사 정비 물량확보로 해외 외주정비의 내수 전환을 통한 국부 유출 방지와 MRO산업(정비·부품수주·훈련 등) 등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코로나 신규 확진 사흘째 200명대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초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넘어서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이후 75일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확진자도 연일 세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도 본격 검토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3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일(208명)보다 15명 늘었고, 200명대를 넘어선 지난 14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월 100명대를 넘어선 이후 9일째 세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주말 코로나19 검사수가 평일보다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사흘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